

극한 직업 과. 학. 자.

1. 곤충 수사관

대학교에서 생애 처음으로 곤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경탄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곤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난 어릴 때부터 나비를 수집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동물학 학위를 딸 때만 하더라도 나중에 털이 많고 덩치가 큰 동물들을 구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름 : 아모렛 휘태커 박사

직업 : 법의학 곤충학자

연구소 : 영국 윈체스터 대학, 자연사 박물관

난 법의학적 관점에서 곤충을 연구한다. 주로 시체에 서식하는 파리나 딱정벌레가 내 연구 대상이다. 파리와 딱정벌레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번식하는지 연구하면서 경찰과도 협력해야 한다. 사망 시기를 정확히 추측하기 위해서다. 시체에 가장 먼저 생기는 벌레는 검정파리다. 그래서 검정파리는 사망 시기를 추측할 때 유용하다.

항상 예측 불가능한 일이 가득하다. 소수의 법의학 곤충학자가 영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모두 다뤄야하므로 24시간 내내 대기상태이고, 일주일 내내 일한다. 어떨 때는 6가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기도 하고, 몇 달 동안 사건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다. 그와 동시에 윈체스터 대학에서 교편도 잡고 있고, 런던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나 테네시 대학에 있는 '시체 농장'에서 연구도 한다. 시체 농장은 부식한 시체를 연구하는 곳이다.

사건 수사는 정말 힘든 작업이다. 밤에 시체 농장에서 연구하다 보면 무서울 때도 있다. 하지만 보람은 크다.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그렇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벼룩을 연구할 때와는 달리 요즘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본다.

2. 거미 독 짜는 사람

난 거미와 파충류를 기르는 것이 정말 좋다. 예전에는 독이 없는 거미나 뱀을 애완동물로 키웠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후에 제약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베놈테크'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램즈게이트에 있는 애완동물 용품점 한구석에서 출발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은 커다란 실험실에서 작업한다.

이름 : 스티브 트림

직업 : '베놈테크' 설립자

연구소 : 영국 샌드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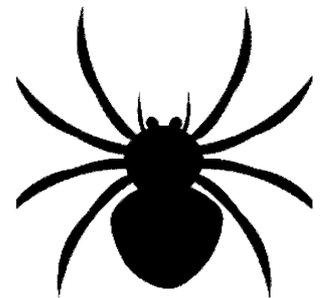
베놈테크는 영국 유일의 상업용 독 제조업체다. 다양한 생물로부터 독을 추출한다. 타란툴라가 속한 새잡이거미과의 거미 70종, 전갈 30종, 블랙위도우나 브라운 레클루즈, 브라질 방황거미 같은 여타 거미, 해파리나 아네모네, 노래기, 딱정벌레, 독사 65종을 다룬다.

우선 실험실 가운과 장갑, 보안경을 착용하고 전문도구로 뱀의 대가리를 잡는다. 뱀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독을 내뿜는다. 우리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병으로 독을 수집한다.

가장 힘든 작업은 블랙위도우(우리 실험실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같은 작은 거미를 다루는 일이다. 블랙위도우는 송곳니가 정말 작아서 작업할 때 손의 떨림이 없어야 하고,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거미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송곳니를 시험관에 대고 미세한 전류로 독선을 자극한다. 독은 시험관 밖으로 새어나가면 못 쓴다. 블랙위도우는 마취해도 위험하므로 항상 집게로 만지고, 잠이 깨지 않도록 이산화탄소를 계속 공급한다.

가족은 걱정이 많지만 아내는 나처럼 독을 내뿜는 동물을 좋아한다.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다. 우리가 추출한 독으로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을 죽였을 때 가장 뿌듯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악어 심리학자

난 세 가지 종류의 악어에게 물려봤고, 그 중 한 녀석은 대가리를 휘둘러 내 정강이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난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지만 팀원들은 커다란 칼은 몸에 지니고 있다. 우리 팀은 악어를 해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우리 팀은 주로 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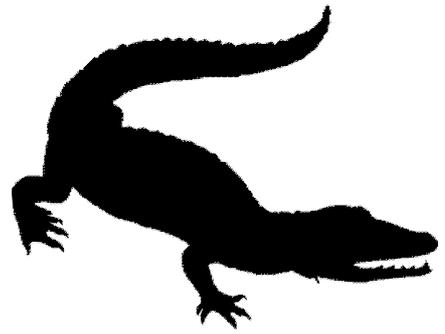
이름 : 체리 세노-로즈
직업 : 실험 생물학자, '미국 악어 교육 보호구역'의 공동 설립자
활동 지역 : 플로리다, 벨리즈

가 민가로 내려왔을 때 전화를 받는다. 팀원들은 몸에 축축한 진흙을 잔뜩 바르고, 썩은 닭고기 냄새가 나는 상태로 밤을 보내며 악어를 유혹한다.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된다. 남편이 악어를 올가미에 걸어 육지로 끌어내면, 난 악어 뒤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다 때가 오면 악어 대가리에 올라탄다. 이후 조수가 뒷다리를 잡으면 악어를 묶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름표를 달아 풀어준다. 악어가 다시 민가를 습격하면 녀석을 찾아 생포하기도 한다.

악어의 행동에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악어를 연구해야 한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녀석들은 물가에서 코만 내놓고 잠수한 채로 반투명한 세 번째 눈꺼풀로 사람을 관찰하는 악어다. 이런 녀석은 사람이 잠시 한눈팔면 바로 공격한다. 악어는 방울뱀보다 3배나 빠르다.

하루는 3m짜리 수컷 악어를 생포하다가 밧줄이 끊겼다. 내 넓적다리 바로 앞에서 이가 부딪히는 진동이 그대로 느껴졌다. 악어는 이가 부러질 정도로 턱을 세게 닫는다.

가장 힘든 일은 악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연구 자금을 구하는 것이다. 가장 뿌듯할 때는 다친 악어를 구해서 치료한 후 풀어줄 때다.



4. 장 탐정

예전 우리 클리닉은 자연 요법을 전문으로 다뤘지만, 얼마 후에 남편 글렌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대변 이식으로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대변 이식 클리닉은 그렇게 출발했다. 처음 대변 이식을 하나씩 문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소름이 끼쳐서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박

이름 : 에니드 테일러 박사
직업 : '테이마운트 소화건강 클리닉' 소장
연구소 : 영국 하트퍼드셔

박 닦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변 이식을 활용해 다양한 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대변 이식은 우선 기증자의 대변에서 유익한 균을 추출해 정제한다. 정제된 대변이라도 몸에 닿는 것은 싫기 때문에 보호복을 꼭 착용한다. 초기에는 이식 도구를 개발하다가 관의 뚜껑이 터지는 바람에 액체화된 대변이 천장기의 환풍기로 뿜어져 나갔다. 환풍기에 똥이 묻었다며 배를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기증받은 대변을 정제하고 나면 급속 냉동한다. 그러다가 이식할 때가 되면 해동해서 따뜻하게 데워 직장 카테터로 환자의 몸에 들여보낸다. 주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없다. 이식 중에는 환자에게 친절해진다. 환자가 편안히 눕도록 한 후에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새롭게 이식받은 균을 돌보는 법에 대해 가르쳐주곤 한다.

이 일을 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 이유도 있다. 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항상 음식이나 소화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 45분마다 인상을 쓰며 화장실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우선 심호흡부터 한다. 그리고 짧게 답할지, 아니며 노가학적으로 길게 답할지 결정한다. 가끔은 '똥 의사'라고 농담하기도 한다. 남편과 낳은 다섯 아이는 이미 다 컸다. 아이들은 처음에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몰랐지만 요즘엔 소화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